

## 第6章 汎國民外交

### 第1節 議員外交

#### 1. 亞洲地域

##### 가. 東北亞地域

한·일간에는 한·일, 일·한 의원연맹이 결성되어 있어 의원연맹을 통한 양국 의원간의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재순 국회의장 및 박준규 민정당 대표의원의 방일과 후쿠다 의원(전 수상)의 방한 등으로 既存友好關係를 심화시킨 바 있다. 또한 야당간 교류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새로운 차원의 한·일 의원간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일, 일·한 의원연맹은 연례행사로서 합동총회(1989. 9.) 및 간사회(1989. 5.)를 서울과 동경에서 각각 개최하여 兩國議員間友好協力深化 및 懸案問題解決를 위한 공동노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의 각 도, 현, 시의 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단의 방한을 통하여 양국 정계인사간의 친목도 모와 상호 이해 저변 확대를 기하였다.

韓·日野黨間의 교류로서는 1989년중 아국에서는 김영삼 민주당총재(1989. 1.) 및 김종필 공화당총재(1989. 7.)가 방일하였으며, 일본측으로부터는 데 히데오 사민련 상임고문(1989. 1.) 및 야마구치 쓰루오 서기장(1989. 12.)등이 방한하여 양국 의원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寄與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이래 출곧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中華民國에 대하여도, 1989년 아국 의원들의 방문이 빈번하였다. 상공위 중소기업소위 소속 국회의원단 6명(단장 : 김봉육의원)은 1989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중화민국 경제부 중소기업처, 신축 공업단지 공업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관계인사를 접촉하고 立法資料를 수집하는 등 한·중화민국간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 민정당 소속 김종곤, 김종호, 정몽준, 김동인, 유기천 의원은 중화민국 외교부 초청으로 1989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화민국을

방문하여 유활재 입법원장, 정위원 국방부장, 연전 외교부장, 임동 중·한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예방하고 아국의 北方政策 推進 배경등을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특히 입법부내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 議員親善協會 使節團 5명(단장: 홍희표 의원)은 1989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중화민국 방문 기간중 이등휘 총통, 유활재 입법원장, 김수기 외교부차장 및 주사열 중·한의원 친선협회 부회장을 예방하고 김재순 국회의장의 유활재 입법원장 방한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한·중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아국 북방정책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 아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토록 하였다.

그리고 1989 被壓迫民族週間行事(1989. 7. 18~23)에 국회대표단 4명(김한규 의원외 3명)이 참가하여 이등휘 총통, 유활재 입법원장, 장건방 교통부장을 예방하고 아국 북방정책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 아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등 한·중 양국간 友好增進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國會 법률개폐특위 해외시찰단 5명(단장: 오유방 의원)은 198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화민국 방문 기간중 유활재 입법원장, 임동 중·한의원 친선협회 회장 및 국민당 대륙공작회를 방문하여 아국 北方政策에 관한 설명을 통해 아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같은 아국 의원들의 訪中에 대해 중화민국 의원들의 방한 활동도 활발하였다. 유활재 중화민국 입법원장은 1989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김재순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을 시찰하였다. 아측은 한·중화민국간 相互補完의 경제협력 증진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한반도의 緊張緩和와 平和維持를 위한 북방외교정책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북방외교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友好國家인 중화민국과의 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중화민국 입법위원회 7명(단장: 유송번 의원)이 채문식 한·중화민국의 원친선협회장 招請으로 1989년 9월 8일부터 방한하여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화당 총재, 민정당 대표위원, 경제기획원 차관 등을 예방하였다. 아국의 北方外交政策 推進과 중화민국의 중국대륙과의 교류 허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은 서로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나. 東南亞地域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外交活動은 의원친선협회 활동, 의원간 상호방문 및 동지역 개최 국제회의에의 참가 등을 통해 1989년도에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및 파푸아뉴기니와 議員親善協會를 맺고 있으며, 그 가운데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노승환 국회부의장 일행이 순방(1989. 7. 18~8. 2)하였고, 한·뉴 議員親善協會 사절단이 뉴질랜드를 방문(1989. 7. 17~20)하였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1989. 2. 17~18)된 제5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회의에 국회는 서상목 의원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아·태지역이 世界 最大的 經濟圈(세계 총생산의 50.4%, 총교역량의 36.5%)으로 부상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의원외교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 다. 西南亞地域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남아지역 국가들과의 의원 상호 교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원외교활동 전개는 양국간 友好親善協力關係 증진은 물론 非同盟 中心圈域인 동지역에서의 대아국 인식 심화 및 아국 지지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스리랑카,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있어 동협회를 통한 양국 의원간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바르드와지 인도 법무담당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사절단이 訪韓하였으며, 198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김동인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의원사절단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향후 의원사절

단 교환방문 등을 통한 아국과 서남아지역 국가간의 의원외교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2. 美洲地域

1989년도 對美 議員外交活動은 비교적 활발하였다. 부쉬 신행정부의 출범과 양국관계의 질적·양적 변화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마찰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따라 양국 의원을 포함한 주요인사의 접촉 및 교류가 그 어느때보다도 빈번하였다.

여소야대 현상에 따라 국회의 기능이活性化되고 주한미군 문제, 통상문제 등 한·미간 주요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 의회와의 접촉이 중요해진 것도 의원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된 요인이었다. 즉 미 의회내에서는 국제적緊張緩和 추세와 미국의財政赤字에 따른 예산절감 필요성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비삭감을 위한 해외주둔 미군 경비 절감 및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아국 對美貿易黑字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아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아국 의원들은 공적·사적 방미 기회를 적극 활용, 미 위원 등 주요인사와의 친분을 증대하고 아국의 현실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1월중 국회 김현옥 外務統一委員長 일행이 부쉬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 신행정부의 주요인사와 접촉하였다.

2월에는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크랜스톤 미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미하였고,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美上·下兩院이 연례적으로 주관하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4월에는 국회 무역소위 의원단(단장: 이동진의원)이 방미, 젠킨스 미 하원 의원등과 만나 韓·美通商問題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국회 농수산위 소속 의원(단장: 김종기의원)들은 미 상·하원 농업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 아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문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6월에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소련 방문후 귀로에, 김종필 공화당총재가

미 항공사 시찰차,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단장: 김현욱 의원)들이 세계 한민족 지도자 대회 참석차, 그리고 이덕호 의원등 여야 의원 7명이 미 代議政府 研究所 초청 세미나 참석차 각각 방미, 의원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에는 국회 외무통일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원들이 방미, 노대통령의 방미 활동을 축면 지원하였으며, 제7차 國際戰略問題研究所(CSIS) 주최 동아·태회의에는 아국 의원대표단(단장: 이종찬의원)이 참석, 한반도 정세 및 주한미군 문제 등에 관한 아국 입장을 미측에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개별 또는 단체로 많은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 韓·美 關係增進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아국 의원들은 상기와 같은 방미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주요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그리고 친분있는 미 의원등에 대한 서신 발송 등을 통해 정부의 對美 外交努力을 적극 축면 지원하였다.

친분있는 미 의원의 방한 초청, 주한미군 문제 등 주요쟁점 발생시 미 의원 일각의 왜곡된 시각을 교정키 위한 서신 발송, 그리고 1989년 10월 국회의 「韓·美 通商關係에 대한 決議文」 채택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도 한·미관계는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韓·美間 主要懸案 問題의 원만한 해결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고 긴밀하였는 바, 이는 적극적인 대미 의원외교 활동에 힘 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89년은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인 자세로 국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원외교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보다 肯定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 3. 歐洲地域

1989년도 아국 국회의원들의 대구주 방문외교는 우선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일행이 스웨덴, 이태리, 교황청, 네델란드 및 헝가리를 방문(2.1~15)하여 각국의 정부, 정당 및 의회 주요 지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된 제18차 IPU 총회에 박정수 의원등

아국대표단의원 8명이 참석하였고, 국회 문공위 동구권 사절단(단장 : 정대철 의원)은 평가리를 방문(4.26~29)하였다.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프리마코프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 소장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6.2~10) 정계·학계의 유력인사들을 접촉하였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현욱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일행이 사할린을 방문하였다.

한편 김재순 국회의장은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등 유럽 3국을 公式 訪問(6.7~21)하여 각국의 국회의장 및 정부지도자와 면담하였고, 김재광 국회부 의장은 노르웨이 및 덴마크를 방문(4.16~21)하였다. 국회 외무통일위시찰단(단장 : 김현욱 의원)은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럽分斷國 Workshop 참석차 폴란드, 오스트리아 및 독일을 방문하였다.

구주지역국가 의원으로는 크렙쉬 구주의회 기민당 그룹의장(6.22~24), 스웨덴 국회 교체위 대표단(8.25~30), 스웨덴 국회외무원 대표단(8.29~9), 이태리 상원의원단 13명(9.5~9)등이 각각 방한하였고 가기오르 평가리·韓議員親善協會 會長 일행이 방한(12.4~8)하여 한·동구간 의원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국 의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국과 歐洲諸國과의 關係增進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歐洲諸國 議會指導者들과의 상호 친분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시켰으며, 활동반경을 동구지역 국가들에까지 확대시켜 더욱 활발한 의원외교를 전개하였다.

1989년의 歐洲地域 議員外交에서 두드러진 점은 아국 정당의 國際政黨聯合體 참여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국 정당의 참여대상 國際政黨聯合體는 국제민주연합(IDU), 국제사회주의연맹(SI) 및 국제기민당연합(CDI)이며, 아국 정당의 이를 정당연합체들과의 관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國際民主聯合(International Democrat Union)

민정당은 1989년 7월 뱅쿠버 PDU(Pacific Democrat Union, IDU의 지역 연합체) 운영위에 옵서버(박준규 대표위원등 8명)를 파견, 가입을 신청하여 준회원으로 認定되었고, 1989년 9월 동경 4차 IDU 당수회의에도 대표단(김윤환 의원등 4명)을 파견하여 IDU 및 PDU 정회원 가입을 위해 활동을 전

개하였다.

② 國際社會主義聯盟(Socialist International)

1969년 6월 통일사회당(총재 : 김철)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으나 그후 동 정당의 원내 의석 미확보 등 國內基盤 부족과 일부 회원국 정당의 아국 국내정치 현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가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민당은 1989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ток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사회주의연맹(SI) 제18차 총회에 게스트자격으로 대표단(박영숙 부총재 등 6명)을 파견하여 관심을 보였다.

③ 國際基民黨聯合(Christian Democrat International)

1989년 2월 평민당은 김대중 총재의 유럽 방문시 Piccoli CDI 회장(이태리 국회의원)에게 읍서버 가입을 신청하여, 1989년 9월 과테말라 총회에 문동환 의원 등 7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읍서버 자격을 획득하였다.

일부 회원국 정당들의 아국 정치상황에 대한 否定的 視角 등이 있으나, 아국 정당이 국제정당연합체의 일원이 된다면 아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고, 회원 정당 및 해당국으로부터의 협조 및 지원 확보 등의 실익이 기대된다.

#### 4. 아프리카地域

제 2 장 1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第2節 學術·文化交流

### 1. 概 觀

1989년 아국 문화외교의 기본방향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의 아국의 國際的 地位 向上과 아국 사회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문화 역량의 대외적 확산과 이의 지속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정부간 문화외교를 積極 推進함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활발한 國際文化活動으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한편 전전한 해외문화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힘써 왔다. 향후에는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國民文化外交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政府間 文化協力 強化

#### 가. 文化協定 締結

1965년 한·이태리 문화협정 체결 이후 1989년 현재 아시아지역 11개국, 구주지역 9개국, 미주지역 21개국 및 중동·아프리카지역 21개국 등 총 62개국과 文化協定을 체결하여 문화, 학술, 언론, 체육분야 등에서 양국간의 協調를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1989년에는 아국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동구권 국가중에서는 최초로 헝가리와 文化協定을 체결하였다.

#### 나. 文化共同委員會 運營 및 外交經路를 通한 文化交流

양국간 문화·학술·언론·체육분야 등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相互關心事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2~3년마다 개최되는 문화공동위원회가 1989년에 신설된 회람과 호주와의 共同委를 포함, 현재 총 16개국(현재 운영중인 국가는 10개국)과 설치되어 있으며, 1989년에 회람, 벨기에, 호주 및 인도와 文化共同委를 개최하였다.

## 〈文化共同委員會 設置國 現況〉

구 분 국 명	명 칭	발 족	최근 개최 현황
구 주	프랑스	문화 및 과학 기술 공동위	9차, 88. 5. 16-18 (파리)
	영국	문화 공동위 (상설 혼성위)	3차, 88. 6. 20-21 (서울)
	독일	문화 공동위	6차, 87. 11. 2-5 (서울)
	이태리	상설 공동위	5차, 88. 12. 6-7 (로마)
	벨지움	상설 혼성위	3차, 89. 2. 13-17 (브뤼셀)
	회 합	문화 공동위	1차, 89. 2. 6-10 (아테네)
	인도	문화 공동위	5차, 89. 11. 27-29 (뉴델리)
아 주	일본	문화 교류 실무협의회	4차, 90. 3. 16-17 (서울)
	호주	문화 공동위	1차, 89. 5. 22-23 (서울)
미주	미국	문화 교류위	2차, 84. 12. 5-6 (서울)

한편, 문화 공동위를 개최하지 않고 外交經路를 통해서 문화교류 시행계획서를 작성, 서명하여 2-3년 단위로 양국간 구체적 文化交流를 시행하는 나라는 1989년 방글라데시가 신규로 추가되어 현재 터키, 요르단,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 5개국에 이르고 있다.

### 3. 88 올림픽以後 文化外交 強化

#### 가. 概 要

올림픽을 전후하여 종래 서방 선진국에 치중하여 왔던 우리의 문화외교 대상영역이 동구권 및 비동맹권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감에 따라 향후 보다 균형있는 文化外交가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외교는 올림픽 이래 더욱 강화되어 우리의 傳統文化와 한국학을 전세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1979년 이래 계속되어 온 對韓國觀 是正 努力의 일환으로 외국 역사교과서 등을 수집, 분석하여 아국에 대한 기술중 오류·왜곡 부분에 대한 是正資料를 작성하여 아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외국인들 스스로에 의한 한국학 연구도 크게 活性化되어 올림픽 이후 11개국 16개 대학에서 韓國學 講座가 신설되었거나 증설되었다.

#### 나. 傳統文化 傳播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국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文化大國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립무용단과 국립 국악연주단이 아주 순회공연을 마쳤으며, 또한 1989년 10월 서울 88 藝術團이 미국을 巡迴公演 하였고 동경, 파리,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한국 전통 섬유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1989년 9월부터 10월까지 영가리, 인도, 동경 등에서 韓國 國際文化協會 주관의 「심청전」 공연 및 아국 영화를 소개하는 韓國週間行事가 성황리에 끝났다.

#### 다. 民間團體 國際行事 開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따라 민간분야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고 아국 文化 傳播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89년 중 民間團體 行事로는 5월 로타리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9월 사물놀이 팀의 호주 공연, 6월에서 8월까지의 강선영 무용단의 구주공연 및 멕시코, 모스크바 등 4개국에서 개최된 아국 圖書展示會를 들 수 있다. 교포 행사로는 카나다 교포들이 1989년 6월 카나다 소수민족 文化行事에 참가하였다.

1989년 7월 국제관계연구소 주관의 國際學術會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89년 6월 인도 양카 미술전 및 인도 국제영화제를 포함한 10여개 국제영화제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국제문화활동은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한편, 전전한 해외문화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國際化時代의 조류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과의 상호 이해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아국의 북방외교에 힘입어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유수한 발레단, 오페스트라단의 방한 공연이 한꺼번에 늘어난 점이다. 이러한 民間團體의 대외교류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종합적인 國民文化外交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學術交流

아국과 외국 학생간의 교류, 아국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간의 자매결연, 인적교류, 도서교환 등을 통해서 海外學問의 우수한 부분을 수용함과 동시에 아국의 전통문화 및 학술연구 실적 등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아국 대학생들의 海外研修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國際化·開放化時代에 아국 청년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마. 海外韓國學 振興

한국학은 최근 해외에서 대단히 진흥되었다. 1897년 최초로 피터부르크(현재 러시아)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이후 약 백년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현재는 전세계 33개국 150개 대학에서 韓國學 講義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기관까지 포함하면 170여 기관에서 한국학에 대한 연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주한국학회(AKSE)가 1989년 5월 영국, 런던

에서 제13차 총회를 개최하여 약 130명의 구라과 한국학 학자들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향후 더 많은 나라에 韓國學을 전파, 이해시키고 아울러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도 동양학부내의 중국, 일본학과내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학과를 獨立學科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바. 文化院을 通한 文化交流

아국은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파리에 아국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할 목적으로 海外 文化院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6개국에서 대사관과 별도의 자국 문화원을 설치하여 도서 대출, 세미나 개최, 영화 상영, 어학 교습 등의 활발한 文化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아국도 상기 4곳 이외의 더 많은 지역에 아국 文化院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 사. 韓·日 青少年 交流

제5차 한·일 각료회담(1971. 8.) 합의에 따라 1972년 이래 양국 외무부 주관으로 매년 약 20명 규모의 청소년을 1주일간 교환방문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측이 174명, 일측이 265명을 접수하였다.

1989년에도 양측은 각기 20명씩의 學生들을 교환하였는 바, 동 사업은 과거 16년간 양국민간의 이해증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評價되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 第3節 體育交流

### 1. 概觀

현대 사회에서 체육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각국간 體育交流를 통하여 세계 국민간 상호 선린의식을 고양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체육은 세계무대에서 줄기찬 성장을 거듭한 결과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사에 큰 里程標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88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전후하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및 여타 미수교국가와 직접, 간접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고, 급기야는 東歐圈 社會主義 國家들과 수교를 맺는데 기여하였다. 1989년의 우리나라 체육은 국한된 교류의 틀을 깨고 세계 각국과 체육교류를 할 수 있는 力量을 갖춘 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2. 體育交流 協定

88 서울올림픽 이후 미수교국과의 체육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89년에는 폴란드와 정부간 體育交流 協定을 체결하는 등 미수교국과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로써 금년까지 외국과의 체육교류 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정부간 협정 8개, NOC간 협정 17개 등 모두 24개국 25건에 이르고 있다.

### 3. 國際體育大會 誘致 및 參加

해외 각국에서 개최된 種目別 競技大會에 임원 및 선수단을 파견함과 아울러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체육교류를 강화하고 1989년도에 각종 국제회의, 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389건에 5,002명의 參加實績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제14회 월드컵축구 동부아시아지역 4조 예선 1차전 (1989. 5. 23-27, 서울)을 비롯, 1989년에 37회에 걸쳐 각종대회 및 회의를 주최하였는 바, 모두 4,432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北方 社會主義 未修交國家의 선수단

을 국내에 초청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우호 친선도모는 물론 공식외교 수립을 뒷받침하는 中樞的 役割을 수행하였다.

#### 4. 서울올림픽 後續 海外弘報

##### 가. 서울올림픽대회 成果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 경기 및 지방 4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된 88 서울올림픽 대회는 NOC 회원국 160개국 1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올림픽중 가장 成功的인 大會로 평가되고 있다. 23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에 걸쳐 치루어진 서울올림픽대회의 마스코트는 호돌이이며 대회 표어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고 휘장은 삼태극에서 착상된 범세계인의 「和合」, 「前進」을 상징하고 있다.

외무부는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外務部 올림픽 對策本部」를 설치, 대회의 준비 및 진행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동구권 등 미수교국가와의 체육교류 지원과 이들 국가의 서울大會參加를 유도하여 최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대회가 되도록 하였다.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發展 모습을 해외에 전파하여 공산권 및 비동맹 미수교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많이 기여하였다.

##### 나. 서울올림픽 1周年 紀念行事

서울올림픽대회 1주년을 계기로 우리민족이 이루어낸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를 다시 평가하며,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구현하고 민족축제의 전통을 마련하고자 서울올림픽 1주년기념 行事가 1989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 등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을 비롯, 전국체육대회, 世界韓民族體育大會, IOC위원회와 국제경기대회,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한민족 함께달리기대회, 각종 문화행사 및 학술행사로 짜여졌다.

특히, 외무부가 積極 支援한 세계한민족체육대회는 45개국에 거주하는 1,

400여명의 동포가 참여하여, 韓民族의 同質性을 확인하고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조국의 발전을 목격함으로써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토록 하였다.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1989. 9. 서울)

## 5. 北京 아시안게임 參加 準備

### 가. 北京 아시안게임 概要

1990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아시안 게임에는 39개국 약 7,000명의 선수단 참가가 예상되며 경기종목은 양궁 등 27개 정식종목과 야구 등 2개 시범종목이 있다.

대회 마스코트는 판판(Pan Pan), 대회 標語는 단결(unity), 우의(friendship), 진보(progress)이며 대회 휘장은 아시아 및 11을 象徵하고 있다.

### 나. 우리나라의 參加 準備

우리나라는 종합 2위를 목표로 26개 정식종목 및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0년 1월부터 동 대회 對備 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동 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이의 성

사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다. 1990년 북경 아주대회를 계기로 韓·中相互關係正常化를 위한 여건 조성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육·경제·문화 등 분야별 진출이 진전될 것이므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認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